

# 가치보다 재미에 눈을 떠라, 마음에 찍히는 행복 찾아라

## 그들의 유쾌한 상상

### 문화판을 바꾸다

#### 문화기획자 결산 좌담

광주일보가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시리즈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를 마무리하며 기획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제회갤러리에서 열린 이날 대화에는 문화기획자 전고필(47·전 대인시장 예술감독)씨를 비롯해 정두용(36·청소문화허브 무한 대표), 윤현석(34·컬처네트워크 대표), 박연숙(36·양념처 스튜디오 전 대표), 윤열이(30·컬처네트워크 이사)씨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진행은 김미은 광주일보 문화1부장이 맡았다.

#### 행정·오월·정치·언론 등

#### 광주 사회판 깨고 나가야

#### 청년들 모이면 화학작용

#### 아이디어 교감 공간 절실

#### 시민·예술인 존중하는

#### 문화기관장 필요

▲김미은=전고필씨는 최근까지 서울 문화단체에서 일했다. 중앙과 지역의 문화 기획의 차이가 뭔가.

▲전고필=중앙에서는 서울에서 선보인 사례들을 전국으로 배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 광주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전주(사)이음 김병수 대표는 생활의 절반은 서울에서, 또 절반은 전주에서 한다. 서울 것을 전주로 보내고, 전주 일을 서울에 알린다.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누군가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김미은=광주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나 후배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나.

▲전고필=광주는 다섯 가지 권력으로 귀착돼 있다. 행정, 시민운동 단체, 오월, 정치, 언론 권력 등이다. 광주는 사회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들은 이걸 깨고 가야 한다. 우리 같은 선배들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윤현석=우리는 '가치'보다 '재미'에 눈뜬 청년세대다. 반면 선배 세대들은 '운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청년들은 일상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되겠어?'라며 받아주는 곳은 없다. 기획에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역에서는 받쳐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함께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한 매력적이다. 전 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문화 기획이라고 생각했다.

▲김미은=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뭔가.

▲정두용="재미주의"와 '주인주의'다. 우리 모임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20~30대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결론은 우리는 기껏해야 하숙생이나 사랑방 손님 정도였다. 공무원, 교수 등이 세팅해 놓은 곳에 '집객'의 대상이 되는 정도다. 재미와 주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무한'을 만들었다.

▲박연숙=마찬가지다. "저것들 시답잖은 거 하는데 즐거워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도 좋다. 우리가 즐겁게 놀자고 하는 것이 문화다. 그래서 팀원들이 싫어하는 기획은 하지 않고, 즐거운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한다.

▲전고필=확실히 다르다. 우리 세대는 항상 사회적 공론, 공동성의



24일 광주제회갤러리에서 열린 광주일보 문화기획자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순, 윤현석, 전고필, 윤열이, 정두용씨. (사진 왼쪽부터)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확장 등 사회적 책임감에 쫓겨 살았다.

▲윤현석=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시대가 됐다. 청년들에게는 '재미'가 동기가 된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면 상 상력이 닫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미은=생활인으로서의 기획자의 삶에 대한 고민은 없나.

▲정두용=나는 사실 이 일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 느낀 것이 문화에 솔을 사랑하는 후배들이 그걸 직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쉽게 권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들다. 문화기획자는 통장에 찍히는 행복보다, 마음에 찍히는 행복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기관에 소속되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곧 현실에 순응해버리고 마는 경우를 많이 봤다.

▲박연숙=나는 작가들과 주로 작업하고 있어서 좀 다르다. 작가들은 돈보다 자기 작업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다. 작가들과는 치고 박고 해도 생각이 통하면 돈 문제에 크게 관여치 않는다.

▲전고필=나도 문화기관에서 일해봤다. 목표가 있어서 들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의 부속품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제언을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관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시민과 문화예술인을 존중

할 수 있는 기관장이 필요하다.

▲김미은=예산과 상관없이 해보고 싶은 기획들이 있나.

▲정두용=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체 예산이 5조 원이라고 들었다. 상상해봤는데 그 돈은 1억짜리 작은 갤러리 5만 개를 광주에 만들 수 있는 돈이고,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1년 내내 48년간 할 수 있는 돈이다. 시장이 "우리는 음악도시를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라.

▲윤현석=문화와 도시 재생은 항상 연결돼 있다. 광주 지역 곳곳에 도심 뒷밭을 만들고, 문화관과 연계해 친환경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생겼으면 한다. 예술가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해 즐겁다. 하지만 광주는 생산만 있고, 유통과 소비가 없다. 이런 것을 광주 문화재단이 해결하면 한다.

▲박연숙=시골 마을회관처럼 예술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 공동부엌처럼 그 안에서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가 확산돼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전고필=박연숙 선생 말씀의 좋은 사례가 서울 청년일자리허브다. 거기에는 560여평 되는 공간에 카페, 공동 부엌, 휴식 공간, 공작실, 영상회의실 등을 갖춘 무중력지대

라는 공간이 있다. 광주에서도 그걸 해보고 싶다. 전일빌딩에 만들어 보고 싶다.

▲정두용=맞다. 얼마 전 광주시장이 지역 청년들과 만났을 때도 대부분 청년단체들이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모이면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또 최근 청년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열이=매력적인 것을 좋아하는다. 재미도 중요하지만 재미는 단발성에 끝날 수 있다. 매력적인 것은 다음에도 끌림을 준다. 나는 기획을 할 때도 '광주만의 매력, 지역만의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광주만의 향기, 광주만의 매력 필요하다.

▲전고필=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사람이 들어주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이 사회적 연관성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정보보조금을 받는 것도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받게 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기획을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했으면 한다.

/사회=김미은기자 mekim@/정리=김정민기자 kki@



## 봄의 생동감 국악에 담아

### 내일 '황토제' 초청 목요상설한미당

'국악에 살아보내는 봄 향기.' 광주를 대표하는 국악 실내악 그룹 '황토제'가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상설 국악한미당에 초청됐다. 27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2014 Spring Gukak 봄을 여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봄의 생동감을 국악에 담아 선사한다.

공연 서막은 경쾌한 경기민요 '창부터'를 주제로 편곡한 '아니 놀지 못하리라'가 장식하며 소금과 25현 가야금 선율이 인상적인 '봄을 여는 소리', 노래곡 '봄물에 배 띄어'가 공

연된다. 이번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이는 위촉곡 '바람의 아리랑'도 만날 수 있으며 '강강술래'를 재해석한 '술래가 돈다'도 눈에 띈다. 피날레 곡은 각 국악기의 특성을 만끽할 수 있는 '난장'이다. 박해민, 조은혜, 정현영, 김혜정, 박진희, 이왕재, 문보라씨 등이 출연한다.

1999년 창단된 황토제는 전통 음악과 함께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국악을 들려주는 젊은 연주자 그룹이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황당한 세친구 '불편한 타이밍'

### 27일~5월11일 상무지구 기본좋은극장

유쾌하고 황당한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불편한 타이밍'이 관객들을 찾아가다. 27일~5월11일 광주상무지구 기본좋은 극장. 월요일 공연 없음.

연극은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 옛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권태기 부부의 사랑 되찾기, 세 남자가 벌이는 소동, 모태솔로 첫 사랑 지키기 프로젝트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편에 녹여냈다.

주인공은 20년 전 동네를 주를 잡던 세 명의 친구인 강건과 오호, 정민.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영웅이

되길 꿈꾸지만 2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부담잡에 장가를 간 데릴사위 정민은 자신에게 싸늘한 아내를 위해 리마인드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하지만 프로젝트 전날 강건과 오호가 정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몰래 정민의 집으로 쳐들어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빠른 극 전개와 캐릭터의 변화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19세 이상 관람가. 문의 1600-6689번.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청년문화기획자, 행복한 광주만들기 심포지엄 내일 문화재단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지역 문화 뒷받침을 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마련된다.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27일 오후 4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젊은 기획자들의 모임인 28(이

팔)청춘 네트워크·광주문화재단·광주발전연구원, ㈜유스컴퍼니·전남대학교 BK플러스21 공동 준비한 행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 정민홍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 현장 문화기획자의 이야기와 청년문화기획 정책지원 방안 등에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무한 대표, 윤현석 (주)컬처네

트워크, 김가연 (주)라우 꼬마농부 학교 대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운 대인시장 전 예술감독이 참여한다.

청년문화기획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70-4239-50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원동 휴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